

## 美 2026.1월 고용지표 내용 및 뉴욕 금융시장 반응

## 1. 고용지표 내용\*

\* 당초 2.6(금) 발표 예정이었으나 美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에 따라 오늘로 연기

□ 1월 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(Non-farm Payrolls)는 전월대비 13.0만명 증가  
[Bloomberg 시장예상치 +6.5만명]

○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17.2만명 증가[예상 +6.8만명]하였으며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4.2만명 감소

— 세부 업종별로는 운송·창고(-1.1만명)를 제외하고 교육·의료(+13.7만명), 전문기업서비스(+3.4만명), 건설(+3.3만명)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

○ 지난 12월 및 11월 취업자수는 1.7만명 하향조정(12월 -0.2만명, 11월 -1.5만명)

□ 경제활동참가율(62.4% → 62.5%)[예상 62.4%]은 전월에 비해 상승하고 실업률(4.4% → 4.3%)[예상 4.4%]은 하락

○ 가계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38.7만명 증가한 가운데, 이 중 취업자수\*는 52.8만명 증가하였으며 실업자수는 14.1만명 감소

\* 기업조사 기준 조정치(농림업 및 자영업 제외, 다중취업 추가)는 전월대비 69.0만명 증가

○ U-6 실업률\*은 8.0%로 전월(8.4%)에 비해 하락

\* 최근 4주간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, 경제적 이유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

□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대비(0.1% → 0.4%)[예상 0.3%]로는 확대되었으나, 전년동월대비(3.7% → 3.7%)[예상 3.7%]는 전월과 동일

○ 주당 평균노동시간(34.2시간 → 34.3시간)[예상 34.2시간]은 전월에 비해 증가

## 주요 부문별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

	25.11월	12월	26.1월	3개월 평균
비농업 전체	4.1	4.8	13.0	7.3
-민간부문	7.2	6.4	17.2	10.3
(건설)	3.6	-0.4	3.3	2.2
(제조)	-1.0	-0.8	0.5	-0.4
(도·소매)	-0.7	-4.0	0.1	-1.6
(운수·창고)	-5.9	-0.1	-1.1	-2.4
(전문·기업서비스)	5.6	1.5	3.4	3.5
(교육·의료)	5.6	5.3	13.7	8.2
(여가·음식숙박)	-1.2	4.5	0.1	1.1
-정부부문	-3.1	-1.6	-4.2	-3.0

## 실업률 및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



작성자 : 김대석 과장

## 2. 금융시장 반응

- 시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 예상치 큰 폭 상회\*, 실업률 하락\*\*, 경제활동참가율 상승, 임금상승률(전월대비) 확대 등 세부내용이 모두 견조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\* 일부 투자은행은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시장예상치의 2배(13만명 vs 6.5만명\*)에 달하고 3개월 평균기준으로 7.3만명으로 작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안정화 단계를 넘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(Wells Fargo)

\*\* 실업률은 반올림 제외시 4.283%까지 하락하며 작년 여름(8월)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며,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하락폭이 더 컸을 것(Morgan Stanley)

- 취업자수는 운송·창고(-0.1만명 → -1.1만명)를 제외하고 교육·의료\*(+5.3만명 → +13.7만명), 전문기업서비스(+1.5만명 → +3.4만명) 등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며, 건설(-0.4만명 → +3.3만명), 제조(-0.8만명 → +0.5만명) 등은 상승 전환

\* 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폭이 교육·의료부문에 크게 치우쳤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(JP Morgan, Barclays)

— 최근 AI 확산으로 인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 우려가 증대되었으나, 전문기업서비스부문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20~24세 연령대 실업률이 고점 대비 2%p 하락(9.2% → 7.1%)하는 등 AI로 인한 고용악화 우려는 다소 완화

- 가계조사에서 실업률이 하락하며 작년 8월 수준까지 회복\*

\* (25.8월) 4.3% → (9월) 4.4% → (10월) 미발표 → (11월) 4.5% → (12월) 4.4% → (26.1월) 4.3%

- 대부분 투자은행은 금일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로 인해 연준이 당분간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일부는 추가 금리인하 시점을 연기\*

\* Citi는 기존 3월, 6월, 9월 → 4월, 7월, 9월로, TD는 기존 3월, 6월, 9월 → 6월, 9월, 12월로 인하 시점을 연기(매 회의 25b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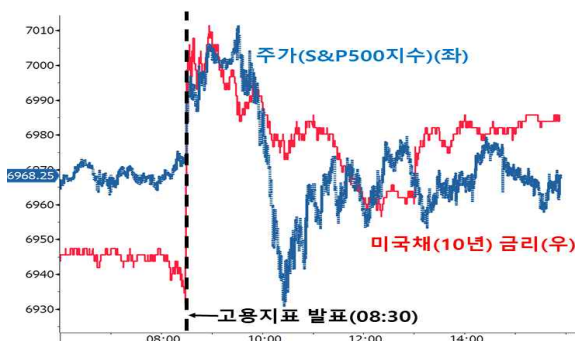
- 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연준의 상반기내 금리인하 기대(전일 105.3% → 72.6%)는 크게 축소되었으며, 연내 인하폭 기대(전일 60bp → 53bp)도 축소

- 고용지표 발표(8:30am) 직후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금리 및 주가는 상승하고 미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으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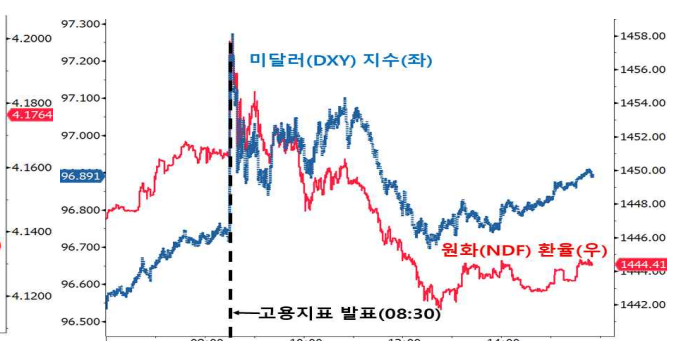
금리 및 주가는 미-이란 지정학적 긴장 고조\*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고, 미달러화는 日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따른 엔화 강세 등으로 강세폭을 축소

\* 美 국방부는 협상 결렬 등 이란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 두 번째 항공모함의 중동 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언(WSJ)

美 국채 금리(10y) 및 주가(S&P 500 지수)



미달러화(DXY) 및 원화(NDF)



자료 : Bloomberg

### <주요 투자은행 등 코멘트>

- **(Bank of America)** 금일 고용보고서는 취업자수 증가폭 예상치 큰 폭 상회, 실업률 하락, 경제활동참가율 상승, 노동시간 증가 등 **모든 부문에서 견조한 모습**을 보임. 기업조사 연간조정 하향폭이 당사 전망보다 컸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임. 만약 향후 **실업률이 추가로 하락**한다면 월러 이사 전망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**사실상 금리 인하가 종결될 수 있음**을 의미
- **(Morgan Stanley)** 전반적으로 매우 견조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는 **매과적**인 고용보고서였음.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상치에 2배에 달했으며 이전과 달리 직적 2개월 하향조정폭도 경미하였음. 실업률(U3)·광의실업률(U6)도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전월대비 임금상승률도 확대되었음. 경제참여율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면 실업률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을 것
- **(JP Morgan)** 모든 부문에서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였음. 실업률은 반올림 제외시 4.283%까지 하락하였으며,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도 감소하고 실업기간도 단축되는 등 **노동시장이 안정세를 넘어 개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음**. 다만 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폭이 교육·의료(+13.7만명)부문에 크게 치우쳤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
- **(Goldman Sachs)** 하셋, 나바로 등 최근 백악관 인사들의 고용시장의 부정적 신호를 암시하는 발언이 무색할 만큼 금일 고용지표는 강력한 데이터였음. **연준의 3월 인하 가능성은 명백히 사라졌으며** 금요일에 발표되는 CPI 지표마저 매과적인 시각을 강화시킬 경우 미국채의 강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
- **(Wells Fargo)** 취업자수 증가폭(3개월 평균 기준)이 작년 2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회복되고 실업률도 추가 하락하면서 작년 여름과 유사한 수준까지 회복하였음. 연간조정에서 큰 폭의 하향 조정은 이미 작년 QCEW 데이터 발표시 예견된 결과라서 서프라이즈 요소는 아니었음. 금일 **고용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고무적**이었음
- **(Barclays)** 취업자수 증가폭(3개월 평균 기준)이 7.3만명까지 회복되며 명백한 개선 흐름을 보였음. 실업률도 4.3% 미만으로 하락하며 **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다시 견조해졌음을 나타내는 신호**임. 한편 경제성장 측면에서 노동시간은 늘고 임금은 상승함에 따라 근로소득 증가세가 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. **다만 고용 증가가 특정 부문(교육·의료)에 쏠리고** 여타 부문은 미약한 회복 내지 정체에 그쳤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
- **(Deutsche Bank)** 금일 고용보고서는 **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사라지게 할 만큼 매우 견조한 모습**을 보였음. 최근 AI 확산에 따른 청년 실업률 증가 우려가 있었지만, 해당 연령대의 실업률이 고점대비 2%p 하락하며 긍정적인 반전 신호를 주었음
- **(WSJ)** 연간조정으로 작년 고용 증가분이 하향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, **연준에게는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**를 가질 것. 시간제 일자리의 감소, 6개월 이상 실업자 감소 등 노동시장이 질적으로도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. 금일 고용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.

<참고>

## 기업 및 가계조사 연간조정

- (기업조사) 2025.3월말 분기 고용임금 센서스(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)를 반영하여 원계열은 2024.4월 데이터부터, 계절조정계열은 2021.1월부터 수정
- 이에 따라 2025년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폭(계절조정)은 총 40.3만명 하향 조정되었으며, 이중 12월 및 11월은 각각 0.2만명, 1.5만명 하향

### 연간조정에 따른 2025년 월별 비농업부문 취업자수(계절조정) 변동 (천명)

2025년	비농업부문 취업자수			전월대비 증감		
	수정 후(A)	수정 전(B)	차이(A-B)	수정 후(A)	수정 전(B)	차이(A-B)
1월	158,268	159,053	-785	-48	111	-159
2월	158,310	159,155	-845	42	102	-60
3월	158,377	159,275	-898	67	120	-53
4월	158,485	159,433	-948	108	158	-50
5월	158,498	159,452	-954	13	19	-6
6월	158,478	159,439	-961	-20	-13	-7
7월	158,542	159,511	-969	64	72	-8
8월	158,472	159,485	-1,013	-70	-26	-44
9월	158,548	159,593	-1,045	76	108	-32
10월	158,408	159,420	-1,012	-140	-173	33
11월	158,449	159,476	-1,027	41	56	-15
12월p	158,497	159,526	-1,029	48	50	-2
계				181	584	-403

- (가계조사) Census Bureau의 추정인구 수정치를 매년 1월 수치\*에 반영해 왔으나, 올해는 다음달 2월 수치 발표시부터 인구조정이 적용될 예정
- \* 이에 따라 직전년 12월과 금년 1월 수치간 시계열 단절이 발생
- 오늘 발표된 1월 수치도 다음달 인구조정 반영시 함께 수정될 예정